

종족(宗族)과 사회: 한국과 중국의 비교

김성철*

1. 들어가는 말

동아시아 사회구조의 인류학적 연구는 중국 종족(lineage)에 대한 프리드만(Freedman)의 기념비적인 책(1958, 1966)이 출판됨으로 신기원을 맞이하게 된다. 프리드만은 영국 사회인류학자들이 1940, 50년대에 아프리카의 자료를 기초로 정리한 전형적인 단계출계집단(unilineal descent group)으로서 종족의 고전적인 모델을 중국사회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¹⁾ 프리드만이 아프리카 부족사회와 중국을 비

*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책임연구원

- 1) (영국) 사회인류학자들의 친족 연구는 크게 세 지역에서 행해졌으며, 어느 지역의 자료를 기초로 접근하였느냐에 따라 연구의 내용이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소위 단계출계집단의 고전적인 모델로 아프리카의 자료를 기초로 단계출계집단이 정치적 연속집단(corporation)이라는 사실을 구명하려던 부류이며 대표 저작은 Evans-Prichard(1940, 1951), Fortes(1949, 1953), Smith(1956) 등이 있다. 1960년대 이후 사회인류학자들의 현지조사지

교하던 중, 중국에는 예로부터 중앙집권적 사회가 존속되어 온 사실에 근거하여 프리드만은 영국 사회인류학자들이 주장하는 종족 모델과 중앙집권적 체제가 양립할 수 없다는 논의를 부정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아프리카 부족사회에서 종족의 사회적 기능 중 정치적인 기능이 가장 중요한 바 이를 기초로 부족사회의 정치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에 종족은 중앙집권적 사회체제하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논의를 프리드만은 부정하고, 대신 중국의 종족들이 어떻게 중앙집권적 사회체제 하에서 존속할 수 있었나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에반스-프리차드(Evans-Prichard)나 포르테스(Fortes)가 누어족(Nuer)이나 탈렌시족(Tallensi)의 자료로 정리한 아프리카 종족의 특성은, 첫째 종족의 구성원은 단계출계율로 계보의 추적이 가능한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대체로 동일한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다는데 있다. 또한 종족의 구성원들은 경제적으로나 계급면에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조상의례 등 행사를 수행하는 연속집단(corporation)이다. 아프리카 종족은 외부의 다른 종족들에 대해 정치적 집단으로 기능하고, 내부에서는 分枝(segmentation)를 통하여 보다 가까운 친족으로 소집단을 이루며 소집단 사이에 경쟁, 갈등,

가 뉴기니를 포함한 아프리카 외부지역으로 넓혀짐에 따라 '느슨한 사회구조(loosely structured society)' 논쟁이 시작되었다. '느슨한 사회구조'란 특히 뉴기니 지역을 현지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단계출계집단에 인척 등 단계출계율로는 귀속될 수 없는 친족원들까지 포함하여 이룬 친족공공체의 구조를 일컬으며, Barnes(1962), Langness(1964), Meggitt(1965) 등의 선행적 연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은 Kelly(1974)를 보면 된다. 세번째 부류는 중국의 자료로 접근하며 Freedman과 같이 친족조직과 국가시스템의 양립 등의 연구주제를 놓고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며 친족연구를 하고자 노력한 부류이다. 중국 친족연구의 대표 저작은 본 논문에 인용된 저서외에도 Ahern(1973, 1976), Baker(1968), Pasternak(1972), Watson(1974), Ebery and Watson eds.(1986), Freedman ed.(1970) 등이 있다.

협조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아프리카 부족사회에서는 종족을 준거로 정치, 의례 등 사회제도의 제양상을 거의 설명할 수 있는 등 단계출계율에 의한 친족원리가 부족 사회구조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긴 역사와 더불어 사회 내에 계층, 계급, 인종 등 다양한 이질 요소들이 존재해 왔고 이런 요소는 같은 종족에 속하는 구성원들 마저도 구분지을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왔던 것이다.²⁾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종족이 존재해 왔으며, 프리드만(1958: 135-137)은 이를 출계상 장자우선의 원리가 없는 중국 종족에서는 종족내의 비대칭적 分枝(asymmetrical segmentation)를 통하여 계급적, 경제적 이질요인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종족내에서 부의 축적이 있고 위세가 높은 파(segment)는 그 종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종족을 만들지 않고 그들만의 배타적인 파를 형성하여 의례적, 경제적으로 다른 파와 구분하고 공동재산에서 산출되는 이익을 파에 속하는 구성원끼리 공유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한국사회에 관해서도 일부 언급하며, 장자 출계의 원리가 분명한 한국에서는 종족내 위계질서가 분명하므로 내부의 분지가 중국에서 만큼 용인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종족이 어떻게 중앙집권적 사회체제 하에서 존속될 수 있었나에 대해서는 또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자넬리부부(Janelli and Janelli 1978)는 한국 종족내 분지가 중국만큼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프리드만이 생각하듯 한국 종족에서 장자우선의 원칙이 분명해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는

2) 이질적 요소에 의해 종족 구성원들이 구분된다는 것은 종족 구성원들에게 같은 종족에 속해 있다는 귀속보다 계급, 신분 등의 요소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더욱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고전적 단계출계집단 이론에 의하면 이질적인 사회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종족 귀속감만으로 구성원들을 응집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단계출계집단은 존립할 수 없거나, 존립한다고 해도 사회구조상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위를 입증하는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같이 부의 축적이 있다고 종족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하여 독립적인 파를 형성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넬리부부는 종족내 분지가 활발하지도 않으며 한국에서 종족들이 존속해 왔던 사실을 언급하며, 프리드만이 주장한 중앙집권적 사회체제하에서 종족의 존속을 수용하는 기준으로서 분지의 기능을 부인하고, 종족이 근본적으로 이질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와 양립할 수 있다/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넬리부부는 특정 복합사회의 종족이 그 사회체제와 양립하는가/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종족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그 종족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에 의한 것이며, 한국에서 이러한 특정 기능으로 종족에 의한 서원의 통제를 들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본 논문에서는 종족과 이질 요소로 구성된 사회체제의 양립에 관한 프리드만과 자넬리부부의 논지를 기초로 한국과 중국에서 종족과 사회간의 관계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2. 중국 종족의 분지(分枝)

프리드만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분야는 중국 남동부지역의 종족으로, 프리드만(1966: 20)은 종족을 “일개 거주지나 가까이 모여있는 수개의 거주지에 공동거주하는 부계친 영속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프리드만(1958: 131-137)은 중국 남동부지역의 종족을 구성원의 수(크기), 분지 정도, 공동재산에 따라 A형으로부터 Z형까지 나누어질 수 있으며, 남동부지역의 모든 종족들은 분석상 A-Z의 연속선상의 일점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프리드만의 모형에 따르면 A형 종족은 구성원 수가 적고 분지의 정도가 약하고 공동재산이 별로 없으며, Z형 종족은 크고 공동재산이 많으며 내적으로 여러개의

파로 비대칭적인 분지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

프리드만은 아프리카의 종족과 비교하여 중국의 종족이 어떻게 중앙집권적 복합사회에서 존속이 가능하였나에 의문을 가졌다. 영국 사회인류학자들이 종족 모델을 개념화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했던 아프리카 부족사회 종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치적인 것이다. 즉 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나 기타 다른 측면은 동질적이어서 구성원들을 구분, 집단화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용을 할 수 없는 한편 중앙집권적 정치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프리카 부족사회에서는 통합과 분열을 통해 다양한 레벨의 종족들이 각기 계보상 상위 및 하위 레벨의 다른 종족들과 연관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조적 평형상태를 유지해 온 것이다(Evans-Prichard 1940). 이는 소위 “형제에 대항하는 나, 사촌에 대항하는 나와 형제, 육촌에 대항하는 나와 형제 및 사촌”이라는 원칙을 통하여 복수, 분쟁의 해결 등 부족사회 레벨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립, 경쟁, 협조의 관계를 구성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프리카 종족의 분지현상이란 분절적 정치체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시스템이 존재해 왔고 경제나 기타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종족만으로는 사회제도의 제양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프리드만이 중국 친족을 연구하며 처음 관심있게 살펴본 것은 전통 중국사회에서 Z형의 종족이 중국 북부지역보다 남동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프리드만(1966: 159-162)은 중국 남동지역의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 남동부지역에서는 이모작 쌀생산으로 단위 토지당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소작료를 통하여 종족의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혜택을 구심점으로 종족 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아프리카 종족이 정치적인 기능을 주로하는

연속집단이라는 논의와는 달리 중국에서의 종족은 경제적인 면에서 연속집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종족 구성원은 종족의 경제적 능력을 근거로 외부 세계에 대하여 종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사회적 위세를 유지할 수 있어 종족의 응집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후 포터(Potter 1970)는 중국 남동부지역에서 송나라 이후 상업이 발달하여 농업이외에 또다른 잉여의 축적 수단이 존재했었다는 것이나³⁾ 福建(Fukien), 廣東(Guangdong) 같은 주변지역은 중앙 행정부의 권위가 미치지 힘들어서 부의 축적이 쉬울 수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종족은 지역사회에서 권력과 위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요인을 추가하였다. 그중 특히 주변지역 요인의 역할은 대만을 현지조사지로 연구한 인류학자들의 저서가 출판됨에 따라 일부 부정되었다(Pasternak 1969). 즉 어떻게 보면 진정한 주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에서는 부계친 관계 뿐만이 아니라 인척이나 의형제 등 연결 가능한 다양한 관계를 매개로 해서 영속집단을 형성하여 변경지역의 불확실성에 대처했다는 것이다.

여하튼 프리드만은 중국의 종족이 이질적인 사회 요소를 극복하고 종족원간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종족이 아프리카의 종족과는 달리 위토라는 공동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경제적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중국에서는 중앙집권적 정치시스템과 더불어 사회내 여러가지 이질 요소가 존재해 왔기에 이런 요소로 인해 같은 종족에 속하는 구성원마저도 계급, 계층 또는 경제면에서 구분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중국 종족은 내부의 비대칭적 분지를 통해 공동재산을 경영하면서 종족 구성원들 간의 결속을 유지해

3) 앞서 말한 듯이 중국 종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제적인 것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부의 축적이 있으면 종족 내에서 비대칭적인 분지를 하고 독립적인 파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 상업에 의한 부의 축적도 물론 포함된다.

은 것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상속이 균등분배 원칙을 따르며, 가계의 계승은 세대와 연령에 기초를 두기에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종족 이데올로기가 계급 이데올로기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연유로 종족내 부유하고 명망있는 소규모 부계친 집단은 그들 자체의 재산을 기금으로 배타적인 파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파를 통하여 부유한 파의 구성원들은 보다 포괄적인 종족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그들 자신들의 배타적인 사회경제적 목표를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종족내 파간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부계친 공동체의식이란 의례적 명목아래 종족이 존속되어온 과정은 왓슨(Watson)이 제시했듯이 정치경제적인 것이었다. 왓슨(1985)에 의하면 종족내 부유하고 명망이 있는 파에게는 종족이란 소작제를 통한 노동력 제공의 근거인 동시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군사력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원천인 것이었다. 또한 종족의 통제를 기초로 이러한 종족내 파들은 지역 혹은 국가 레벨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신들의 위세 유지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종족내 보다 빈곤한 여타 구성원에게 종족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 주는 기제였으며, 이는 강력한 종족의 주변에 거주하는 극도로 빈곤한 농민층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고로 부유한 일부 파가 종족내에서 배타적인 공동재산을 설립한다는 사실은 소규모 집단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나 종족의 유지를 위해서도 별로 해가 되지 않았다.

중국의 종족이 아프리카의 종족과 극단적으로 다른 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동재산에 근거한 경제적 단위라는 사실이고, 중국 남동부지역의 종족들이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이모작을 통한 잉여 산출, 상업에의 참가, 관계에 진출 등 여러가지가 가능하였다(Potter 1970). 또한 간간히 정치적 혼란으로 중앙 관리들의 통제가 약화될 때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종족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연속

집단이기에 종족내의 파나 혹은 종족 그 자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재산이 축적되었나 안되었나가 일차적인 고려 사항이며, 파나 종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의 신분이나 관직 등 개인적인 지명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의 후손들이 충분한 공동재산을 축적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배타적인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할 필요성이 없기에 파나 종족을 설립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3. 자넬리부부의 한국 종족에 관한 의견

프리드만은 중국의 가계계승권과 상속제도가 평등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서 유추하여, 한국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이 가장권이 장자에게 상속되며 재산상속도 장자에 많은 부분이 주어지는 장자우선 불평등 분배 원칙을 따르기에, 한국 종족내에서는 분지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종족들이 어떻게 종족 구성원의 이질적인 요소를 수용하며 복합사회에서 존속해 왔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넬리부부는 한국 종족은 내부 분지가 중국만큼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프리드만과 동의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지위 입증에 제약이 있어 왔다는 것을 들고 있다.

자넬리부부(1978)는 한국에서 친족과 관련하여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항렬, 연령, 부, 교육, 위대한 조상 등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에, 종족내에서 일련의 근친 집단이 파를 설립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파시조가 될만한 높은 세대의 조상이 있어서 그조상의 후손들이 파를 설립할 정도의 수가 되고 그 조상을 위한 배타적인 기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은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져 있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사당을 세우고 의례용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부의 축적이 어떤 형태

로 이루어졌는지와는 상관없이) 종족내에서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기금만 마련되면 어느 조상이라도 분지에 따른 파시조가 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조상의 지위가 공적으로 인정 되어야⁴⁾ 종족내에서 지위를 입증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특정 조상이 그의 선대나 동세대의 다른 유명한 조상만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그를 위하여 의례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분지와 관련] 의미가 없는 일이며" (Janelli & Janelli 1978: 283), 유명한 선비나 사대부 조상만이 분지의 정점을 이루어 파시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한국에서는 엘리트 종족에서만 종족내 분지현상이 있었지만, 엘리트 종족 내에서의 분지도 중국의 Z형 종족에서 볼 수 있는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이었다고 자넬리부부는 주장하고 있다. 지위 입증이란 요인 외에 자넬리부부(1978: 281-283)는 중국 남동지역에 비해 한국의 종족은 역사가 짧아 중국과 같이 복잡한 분지 체계가 발달하기에 충분히 깊은 출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과, 한국 종족 구성원들은 중국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동질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 종족이 내부 분지가 작은 이유로 제시했지만 지위 입증이 가장 유효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종족 구성원들의 사회 경제적 이질성을 어떻게 수용하였나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자넬리부부는 한국의 종족이 중국과는 다르게 서원을 통제감독했던 사실을 들고 이 독특한 기능이 중국 종족의 내부 분지에 해당하는 역할을 — 종족내 소수 부유한 엘리트 집단의 배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즉 서원을 통하여 유명한 종족에 속하는 선비들은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선비들과 네트워크

4)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4대가 지나도 기세사로 조상의례를 계속하는 불천지위(不遷之位)를 국가로부터 하사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거주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선비들은 서원의 재산을 공동관리하여 지역내 선비들간의 정치적 연계를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같은 파당에 속하고 서울에서 관직에 올라있던 관리를 지원하며 자신들의 위세를 확립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넬리부부의 논의에서 분명한 점은 한국사회에는 지위를 입증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유명한 조상을 정점으로 해서만 분지가 가능했고, 서원의 통제를 통해서 소수 근친 종족 구성원의 목표를 추구하였다는 것 등이 되겠다. 반면 프리드만의 논지의 기초가 되는 종족내 구성원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과연 서원의 통제라는 기능이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넬리부부가 한국 종족에 분지가 작다는 사실에 대한 대안적인 이유로 제시했듯이 한국 종족은 역사가 짧아 출계의 깊이가 중국만큼 되지 않기에 종족내의 문제는 무시할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부터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즉 자넬리부부가 잠시 언급한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종족내 이질 요소가 중국과 같이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종족 구성원간의 사회경제적 구분이 심각하였나 하는 점으로 귀결 된다.

다음절에서 한국 전통사회의 종족 구성원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면에서 중국보다 훨씬 동질적이었다는 점을 한국의 종족이 처해 있던 사회적 맥락을 논의함으로 자넬리부부의 한국의 종족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보충하고자 한다. 물론 종족 구성원들이 중국보다 동질적이었다는 논의는 전통 한국사회 자체에 사회경제적 이질 요소가 존재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종족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는 것을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다.

4. 논의 1: 한국 전통사회와 양반

김택규(1964)에 의하면 전통사회에서 한국 양반의 사회적 지위는 특정 종족에의 귀속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요즈음도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하며 본관과 성(姓) 및 집안의 유명한 조상을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사회에서 양반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조상이 있는 종족에의 귀속으로 규정되었다. 조옥라(1981: 84)도 김택규의 견해에 동의하며 “지역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동족이 양반”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두 사람의 견해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양반의 이미지는 결코 종족에의 귀속과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옥라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계급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전통사회의 양반은 기본적으로 지주 계층으로, 이는 전통시대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생산외의 활동에 소비해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은 구한말 이후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일제시기까지 위세가 있던 구양반계층이 해방후 토지개혁 등으로 잉여의 원천이 되는 토지를 잃어버리며 위세까지 약화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명확해 진다.

양반을 규정하는 기준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양반이 조선조 초기에 유학을 공부한 사대부로 처음 등장했다는 점에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고대 국가들은 씨족에 기초한 국가로 형성되었기에⁵⁾ 토지를 소유한 세습 귀족의 전통이 조선조 말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중국의 관료제도를 충분히 수용한 이후에도 중국의 명이나 청같이 공적(merit)에 기초한 절대적인

5) 삼국의 성립과 관련하여 특히 신라 초기의 6촌과 관련한 제양상은 씨족에 기초한 국가의 전형을 보여 준다.

관료제도를 확립할 수는 없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Palais는 “한국의 양반이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세습적인 자격”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실제 관직에 있을 때나 과거를 통과한 후 사회적 신분을 취득하는 중국과는 판이한 것이다. 또한 조선조에는 관료층의 신분뿐만 아니라 직전법에 따라 관료들에게 나누어 주던 토지까지도 실제에 있어서는 사유화하여 상속되었기에 Palais(1978)는 중앙 관료제와 세습적 양반 제도는 상호공생의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다. 더구나 한국에서 양반의 비율은 조선조 초기 5퍼센트에서 말기 20-30퍼센트까지 이르므로, 이는 명이나 청 시대 중국의 1퍼센트 미만과는(Freedman 1966: 71)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통사회에서 한국의 양반들은 지위를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그 지위에 따르는 신분적,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서 특히 조선조 이후 지역사회에 종족을 구성하는 것이 활발하였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주로 전통사회에서 양반의 사회적 신분과 관련하여 논의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중국 종족 논의의 중심이 되는 종족 구성원의 경제적 차이는 신분적 차이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Z형 종족이 잘 발달된 중국 남동지역의 경우를 보면 종족내에서 배타적인 파를 설립할 수 있는 잉여의 축적은 다양한 출처가 있어, 토지로부터 나오는 농업 잉여(특히 쌀 이모작), 상업, 관직 등을 들수 있다(Potter: 1970). 반면 한국에서는 조선조 말까지도 상업에 의한 부의 축적이나 자본의 형성은 미미하였고 화폐제도마저도 별로 발달하지 않아 토지 이외의 자원으로부터 잉여의 산출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기후의 영향으로 한국의 어느 지방에서도 쌀의 이모작이 불가능하여 토지를 통한 잉여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얼마만큼의 토지를 소유했는가에 귀착된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토지는 일부 자영 농민층이 소유한 사유지를 제외하면 관직에 오른 사람들에게 직전법에 의해 분배되었고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후손들에게 상속이 되

어 대부분은 양반들의 전유물이 되어 왔던 것이다.

자넬리부부가 언급했듯이 부유한 지주와 소작으로 일하는 종족원 간의 차이는 엄청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회1동의 통계를 보면 1953년 토지개혁 이전에는 하회 유씨 가구의 75퍼센트가 지주인데 반해 하회 유씨 종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5퍼센트만이 지주였다는(김택규 1964: 204) 사실은 전통사회에서 경제적 차이도 지역사회 내의 양반/비양반의 구분 즉 종족 구성원/기타의 구분과 일치할 수도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또한 조옥라(1979, 1981)는 전통사회에서 토지의 매매가 자신들의 배타적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의 양반들 사이에서만 행해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전통사회의 상황은 관료에게 주어진 토지의 상속에 엄격한 제약이 있고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부의 축적을 통해 위토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수 근친들로 이루어진 파의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여 가던 중국과는(Freedman 1958, 1966; Watson 1985) 판이한 것이다.

이상의 논지를 요약하면 한국 전통사회에서 경제적 차이도 역시 양반/비양반 즉 종족에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의 이슈로 귀착이 되며 한국의 종족 구성원들은 중국과 비교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훨씬 동질적이었고, 이런 연유로 인해 한국에서는 종족 내부에서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중국에서 만큼 용이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족내에서 파를 설립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순전히 사회적 지위와 연관될 수 밖에 없었고, 자넬리부부가 주장하듯 특정 조상이 다른 유명한 조상만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의례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었으며 유명한 선비나 사대부 조상만이 분지의 정점을 이루어 파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5. 논의 2 : 동말의 경우

앞 절에서는 생계의 수단이 거의 전부가 농업이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만이 잉여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전통사회에서 종족이 처해 있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종족과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절에서는 역으로 생계수단이 다양화한 현시점에는 — 즉 다양한 이질 요소가 종족구성원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 종족내 분지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미 유명기(1977)는 문계(門契)나 셋계(契)라는 형태로 후손들이 4대가 지난 조상들의 시체를 수행하기 위해 위토를 마련하려고 종족내 소규모 부계친이 공동 조직을 구성한 것을 보고해 종족내 비대칭적 분지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래에서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에 위치하고 있는 동말의 자료를 통해 종족내 분지 현상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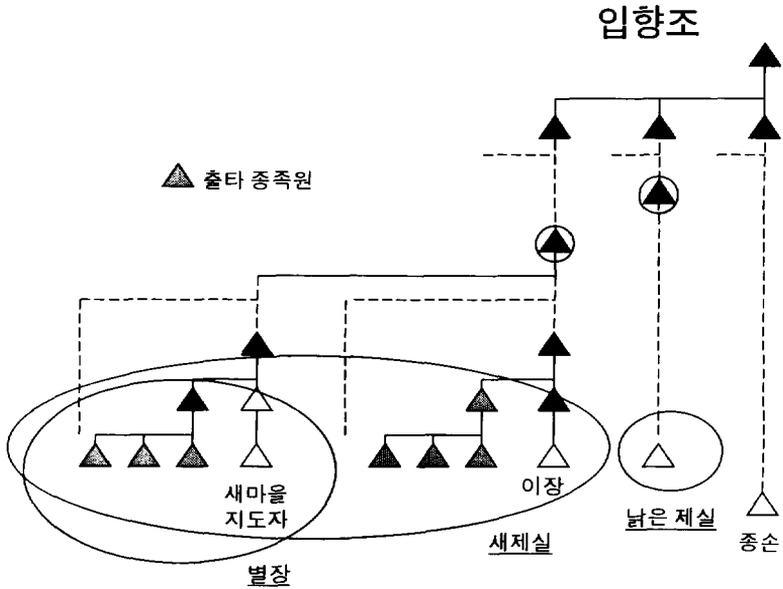
동말은 총 36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32가구가 전주 이씨인 동족부락이다. 동말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경작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부근 고령에서 흔히 현금작물로서 많이 재배하는 하우스 딸기도 자본 및 노동력이 모자라서 하지 않았으며, 겨울철에 고령군에 있는 딸기 하우스로 부녀자들이 품을 파는 것이 거의 유일한 현금원이 되는 가난한 마을이다. 또한 대부분의 농촌과 마찬가지로 이농한 가구가 많아 빈집도 눈에 많이 띄고 전체 주민들 중에 50대가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 요즘 농촌의 전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동말의 입향조는 거창 국농소에서 지방관을 지냈고 임진왜란시 전쟁을 피해 골짜기에 위치한 동말에 들어왔으며 그후 현재까지 15대에 이르는 동안 이렇다할 중앙 관직에 오른 조상도 없고 농업 잉여 창출의 기반이 될만큼 충분한 토지도 소유한 적이 없어 전혀 엘리트 종족이라고 칭할 수 없다. 입향조는 3형제를 두었고, 현재 이 3형제의 자

손들이 각각 비슷한 수의 가구수로 동말의 종족을 구성하고 있다. 흔히 동족부락의 리더가 되는 종손도 동말의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친족들이 적어 마을내에서 종손의 영향력은 거의 없으며, 대신 출타한 근친의 성공을 배경으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마을 및 종족의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

마을내에 눈에 띄는 건물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 제실이 두개로, 넓은 제실은 지방관을 지낸 입향조의 손자들(둘째아들의 아들) 모시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주 최근에 건립된 것이다. 최근에 건립된 제실은 현재로부터 7대위의 조상을 모시며, 마을에서 출타후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손들이 기금을 모아 15년 전에 건립한 것이다. 하지만 그 조상은 관직에 올랐다가 학문적으로 유명했던 분이 아니기에 자넬리부부의 주장에 의하면 결코 분지의 정점이 될 수 없는 인물이다. 세번째 눈에 띄는 건물은 12년 전에 건립된 마을에서 100미터 떨어진 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500평 대지의 별장으로 특히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가난해 보이는 마을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위에 언급된 세가지 건물 중 최근에 건립된 새 제실과 별장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분지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동말에 사는 전체 종족 구성원의 출계도는 <그림 1>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지만 <그림 1>은 동말의 종족내 비대칭적 분지를 개념화한 것으로, 여기에서 최근에 새 제실과 별장을 중심으로 결속된 두가지 소집단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새 제실은 1980년대 초 이장이 주축이 되어 자신의 사촌들과 새마을 지도자의 사촌들이 출타후 성공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 조상인 7대조의 후손들을 전부 포함시켜 그때까지 위토도 없었던 7대조와 일부 5, 6대조의 위토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실을 건축한 것이다. 넓은 제실이 입향조의 둘째 아들 계열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 제실은 입향조의 셋째 아들 계열의 후손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명절 때는



〈그림 1〉 동말 종족의 비대칭적 분지 개념도

이곳에서 차레를 지내러 오는 출타자들과(이장의 사촌중 변호사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의 사촌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성공함) 같이 잔치를 벌이는 등 자못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별장은 현재 서울에서 상당한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촌중 둘째의 소유로 1980년대 중반에 건설되었으며 위에서 이야기한 새 제실의 경우와는 상징성이 상당히 다르다. 이 별장은 동말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도 꽤나 호화스러운 건물로 의례적인 의미는 없지만 새마을지도자 계열의 근친 종족원들이 마을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 계열의 과시적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별장의 완성과 더불어 새마을지도자와 그 사촌들이 주축이 되어 (이장 계열은 배제) 새 제실 건립시 제외되었던 새마을지도자의 4, 5, 6대조의 위토도 마련하였다. 여름철이 되면 이 별장으로 새마을 지도자의 사촌들이 고급 자동차를 끌고와 며칠씩 묵고 가는 등

종족내의 조상과 연관해서는 새마을지도자의 계열이 가장 잘 모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 계열이 별장을 중심으로 전체 입향조 셋째 아들 계열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공동조직을 구성한 것은 이광규(1988-9)가 주장하듯 한국의 친족 및 마을구조에 내재한 갈등과 조화의 원리라는 측면도 반영하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 계열이 전체 새 제실 계열에서 분리되어 자신들의 배타적인 조상을 위한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 활성화된 것이란 점도 — 즉 배타적인 비대칭 분지현상 — 간과할 수 없다.

동말의 사례는 현재와 같이 직업구조가 다양화하여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종족 구성원이 구분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토지에만 근거한 농업생산만으로는 부의 축적이 곤란하여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두가지 사례 모두 분지의 정점이 되는 조상들이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것이 아니기에 한국에서도 종족내의 분지가 특별한 조상을 정점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같이 이질 요소가 종족내에 존재하고 소수의 부유한 종족 구성원들이 그들의 이해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지가 일어난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역으로 동말의 자료는 앞 절에서 이야기 했듯이 한국 전통사회의 종족내에서는 토지이외에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사회경제적 이질 요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두 사례에 해당하는 비대칭적 파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앞으로 어떤 다른 배타적인 목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프리드만의 중국 종족에 관한 이론과 자넬리부부의 한국 종족에 관한 논의를 기본으로 한국에서 종족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시론을 제시하였다. 자넬리부부는 한국 종족에서 내부 분지가 중국만큼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지위를 입증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들며 한국의 종족과 사회에 관련한 '문화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해석이란 특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특정의 인간 행위를 그 사회 특유의 문화제도와 연관시켜 설명을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란 문화적 규율 뿐만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맥락에도 의존적인 것이기에(Harrell 1982),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전통사회에서 종족이 처해 있던 사회경제적 맥락을 살펴봄으로 자넬리부부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종족내 분지가 중국만큼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자넬리부부가 주장하듯 한국사회에서 지위를 입증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 위대한 조상을 정점으로 하지 않으면 배타적인 파를 설립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한편 한국 전통사회 특히 조선조에는 종족 구성원들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 비하여 훨씬 동질적이었으며 사회사제도 종족의 분지를 용인할 수 있는 잉여를 생산할 경제적 기반도 부족하였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역으로 최근의 현지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종족내에서 주로 4대가 지난 조상의 위토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같이 소규모 부계친들이 모여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생계수단이 전통사회에 비하여 극도로 다양화하여 현재의 종족이 그 자체에 다양한 이질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아직까지는 이런 종족내 비대칭적인 분지가 일어난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중국과 같이 소수 근친으로 구성된 종족내 집단이 그들의 배타적인 목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지는 추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택규

1964 『동족부락의 생활구조 연구』, 대구: 청구대학 출판부.

유명기

1977 「한국 문중의 구조 연구」, 『인류학논집』 3: 3-33.

조옥라

1981 「농민사회와 양반」, 『진단학보』 52: 79-95.

Ahern, E.

1973 *The Cult of the Dead in a Chinese Vill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6 "Segmentation in Chinese Lineages: A View through Written Genealogies," *American Ethnologist* 3(1): 1-16.

Baker, H.

1968 *Seung Shui: A Chinese Lineage Vill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Barnes, J. A.

1962 "African Models in the New Guinea Highlands," *Man* 62: 5-9.

Cho, Oakla

1979 *Social Stratification in a Korean Peasant Village*.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Ebery, P. and J. Watson (eds.)

1986 *Kinship Organization in Late Imperial China, 1000-194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vans-Prichard, E. E.

1940 *The Nuer: A Description of the Modes of Livelihood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Nilotic Peop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Kinship and Marriage among the Nuer*. Oxford: Clarendon Press.

Fortes, M.

1949 *The Web of Kinship among the Tallens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The Structure of Unilineal Descent Groups," *American Anthropologist* 55: 17-41.

Freedman, M.

1958 *Lineage Organization in Southeastern China*. London: The Athlone Press.

1966 *Chinese Lineage and Society: Fukien and Kwangtung*. London: The Athlone Press.

Freedman, M. (ed)

1970 *Family and Kinship in Chinese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arrell, S.

1982 *Ploughshare Village: Culture and Context in Taiwa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Janelli, R. M. and D. Y. Janelli

1978 "Lineage Organization and Social Differentiation in Korea," *Man* 13: 272-289.

Kelly, R. C.

1974 *Etoro Social Structure: A Study in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Langness, L.

1964 "Some Problems in the Conceptualization of Highlands Social

Structures,” *American Anthropologist* 66: 162-182.

Lee, Kwang-Kyu

1988-9 “Conflict and Harmony in Korean Rural Community,” *Journal of Korean Studies* 6: 193-210.

Meggitt, M. J.

1965 *The Lineage System of the Mae-Enga of New Guinea*. New York: Barnes and Noble, Inc.

Palais, J. B.

1975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asternak, B.

1969 “The Role of the Frontier in Chinese Lineage Development,” *Journal of Asian Studies* 28: 555-561.

1972 *Kinship and Community in Two Chinese Villag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otter, J. M.

1970 “Land and Lineage in Traditional China,” in M. Freedman(ed.), *Family and Kinship in Chinese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mith, M. G.

1956 “On Segmentary Lineage Systems,”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86: 39-79.

Watson, J.

1974 *Emigration and the Chinese Line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atson, R.

1985 *Inequality among Brothers: Class and Kinship in Souther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